

글로벌 싱킹

No. 41 2011년9월

편집·발행 : 키타구 (北区)청 총무과 총무계 (국제)

東京都北区王子本町 (도쿄도 키타구 오지촌초)1-5-22 〒114-8508 TEL 3908-9308 FAX 3905-3423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여러분도 지진 발생 직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진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 순서와 요령

1 우선 튼튼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는 등 자신의 몸을 보호합니다.



2 흔들림이 가라앉으면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정 내의 모든 화기의 불을 끄시다. (부엌, 스토브 등의 불을 바로 끄시다.)



3 문과 창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합니다!

피난 시 주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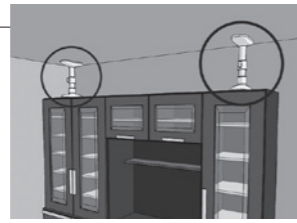
- ★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는다!
- ★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가구에서 떨어질 것, 이동할 때는 유리 파편에 주의합니다!
- ★ 불이 났을 경우에는 즉시 끈다!
- ★ 이웃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협력하며 서로 도움이다.
- ★ 올바른 정보를 듣도록 합니다.



평상 시의 대비 ... 방재 용품

가구 등의 넘어짐, 낙하 방지 아이템

1 강력 지지대
가구에 힘을 내지 않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줍니다. 나사, 못은 필요없습니다.



강력 지지대

2 검락 (gum lock)
가구, 가전 제품의 상부를 고정시킵니다.



검락 (gum lock)

3 내진 매트
TV, 컴퓨터, 장식물 등의 넘어짐 방지. 씻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자 힘으로도 쉽게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내진 매트

비상용 가방을 준비하자.

“비상용 가방”이란 무엇일까요?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나 피난할 때 필요한 물건을 넣어두는 가방!”
목숨을 구하기 위한 서바이벌 용품과 같은 최소한의 피난 용품입니다.
지진과 관련된 방재 용품은 대형 양판점과 홈센터 및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地震が起きたら

日本は世界でも地震の多い国です。日本で暮らしている外国人にとっても、地震発生直後にどのように行動すべきかを知っておくことが非常に大切です。

地震発生時に取るべき行動順序とポイント

1 まず、頑丈なテーブルの下に入るなど自分の身を守りましょう。

2 揺れがおさまったら家族の安全を確認し、家庭内のすべての火を消しましょう。(台所、ストーブなどの火をすぐ消しましょう。)

3 扉や窓を開けて脱出口を確保!

避難する時の注意点

- ★ 慌てて屋外に飛び出さない!
- ★ 倒れてくるかもしれない家具から離れること、次に移動するときはガラスの破片に注意しましょう!
- ★ 火が出たらすぐ消火!
- ★ 隣近所と声をかけあって、協力し合って助け合いましょう。
- ★ 正しい情報を聞きましょう。

日頃の備え ... 防災グッズ

家具類の転倒・落下防止アイテム

1 強力地震ポール
家具を傷つけずにガッチリ固定します。ねじ・釘不要です。

2 ガムロック
家具・家電の上部を固定します。

3 耐震マット
テレビ・パソコン・置物などの転倒防止。洗って何度でも使えます。女性でも取り付け・取り外しが簡単です。

非常持ち出し袋を準備しましょう。

「非常持ち出し袋」とは何でしょう?
「大きな災害が起きた時、避難する場合に持っていく物を入れておく袋!」。
命を助ける、サバイバルグッズ的な、必要最小限の避難グッズです。
地震に関する防災グッズは大型量販店とホームセンター及びインターネットで購入することが出来ます。

키타구 (北区)청의 외국인상담 (예약처) ☎ 03-3908-1101				
• 상담은 중국어 :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1~4시) • 영어 : 제2·제4화요일 (오후 1~4시)				
• 장소 : 키타구 (北区) 구청 제1청사 3층 2번 창구				
자원봉사그룹에 의한 일본어교실				
장소 (회비)	중앙공원 문화센터 (1회 100엔)			아까바네 문화센터 (월 4회 3000엔)
요일 / 시간	화요일 / 19:00 ~ 21:00	수요일·금요일 / 10:00 ~ 12:00	토요일 / 14:00 ~ 17:00	수요일·금요일 / 9:30 ~ 11:30
연락처	090-2669-6512 (카와다)	03-3828-9705 (키무라)	03-5249-5787 (나가이)	03-3909-2263 (타나카)



파괴된 마을 (오오쓰치초) (2011년 5월 23일 촬영)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

1 발생 상황에 대해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오시카(牡鹿)반도 앞바다를 진원으로 한 매그니튜드 9.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야기현에서는 진도 7, 도쿄 중심부에서도 진도 5강(強)이 관측되었습니다. 진원지 부근의 연안에서는 높이 10m를 넘는 해일이 밀려들어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지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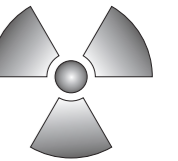
발생한 지 약 반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설 주택 등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의연금과 지원물자가 피해지로 전해졌고 많은 자원봉사자가 현지로 가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재민 여러분도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영향에 대해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설 중 하나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이하, 후쿠시마 제1원전)입니다. 해일과 지진으로 인해 시설 전체가 정전이 되어 원자로 냉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고온의 오염수가 원자로 내에 고여 수소 폭발이 발생, 건물이 파괴되는 등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선이 방출되었습니다. 원전에서 반경 20km 이내 지역은 경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로 인해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여러분은 피난소와 가설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3) 전력부족에 대해

일본은 전력의 약 30%를 원자력에서 조달하고 있었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정지를 계기로 정기 점검을 위해 정지 중이던 원전의 재가동이 쉽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일본 전국에서 절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1)오염수 유출

원자로 내에 고인 방사성 요오드를 포함한 오염수가 지진의 흔들림으로 인해 생긴 관의 구멍을 통해 한 때 바다로 흘러나갔습니다.

(2)방사선(방사성 요오드를 포함)의 방출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이 붕괴됨으로써 공기 중으로 방



오오쓰치쵸 관청이 있던 자리(2011년 5월 23일 촬영)

육아 정보

1 보육원에 대해

보육원(보육소)은 근로나 질병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에 보호자를 대신해서 아이를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보육원에 따라 입원(入園) 가능한 연

령, 정원, 시간이 다르니 보육과 입원상담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과 입원상담계 ☎ 3908-9129

2 유치원에 대해

유치원은 보육원과는 달리 보호자 분의 취업 상황 등과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입원 연령에 달하고 집단생활이 가능한 아이가 대상이 되며 각 유

치원의 전형에 합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아지원과 차세대육성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과 차세대육성계 ☎ 3908-8143

공립유치원은 기타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4세부터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지원과 학교

지원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 학교지원계 ☎ 3908-9293



3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대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방사선

사람은 지면이나 대기 중 또는 우주로부터 일상적으로 방사선의 영향(피폭)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로 등 규제법과 방사선 장애방지법에서 정하는 방사선의 연간 노출 허용 한도는 1밀리시버트(mSv)입니다. 현재 이 수치를 넘는 지역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근이며 도내에서는 기준치 이하 또는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와 방사성 세슘은 원전 사고에 의해 쉽게 방출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원전 부근의 대기 중에 퍼진 방사성 물질은 거의 사라졌으나 각 지자체에서 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력에 대해

지금부터 가을 동안은 전력 수요가 저하되기 때문에 일 단락되지만 겨울에는 난방 등으로 전력 수요가 다시 높아지므로 절전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타구(北區)의 대응에 대해

지진 발생 이후에 기타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연금 모으기

많은 분들께서 보내 주신 의연금을 한데 모아 일본적십자사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구호물자 전달

피해지에 크래커, 알파미(米), 음료수, 담요 등의 구호물자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지에 직원 파견

도쿄도 및 특별구와 연계하여 이와테현 카마이시시, 미야기현 센다이시 및 케센누마시, 후쿠시마현 히로노마치에 직원을 파견하고 직종에 따라 피난소의 운영지원, 건강상담, 가옥조사, 재해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차 기증

3 학동클럽에 대해

학동클럽은 방과후 귀가해도 보호자 분이 근무 등으로 집에 없는 가정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낮에 집에서 돌볼 수 없는 가정의 아이가 저녁까지 놀이를 하면서 지내는 곳입니다.

대상 아동은 구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구내에 거주하며 구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아동입니다.

• 운영 시간은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은 방과후부터 오후 6시(※일부는 오후 7시)까지

• 휴교일은 오전 8시 45분(※일부는 오전 8시 15분)에서 오후 6시(※일부는 오후 7시)까지

이용 요금은 월 5,000엔입니다. 단 소득에 따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용 요금 이외에도 간식비 월1,500엔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아지원과 차세대육성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연말연시입니다. 단 일부 학동클럽은 토요일도 운영합니다.

육아지원과 차세대육성계 ☎ 3908-9097

육아 체험기

김정숙 (29살/주부/국적: 한국)

저는 남편과 2살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현재 대학원에서 공부 중인 학생이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어가 유창한 남편에 비해, 일본어를 공부해 본적이 없는 저는,



유창하지 못한 일본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아이와 노는 것도, 익숙하지 못한 언어와 문화 때문에 평범한 일상도 저에게는 불안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육아 문제였습니다. 보육

원을 몇 군데 지원해보았지만 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일본인 주부 친구에게 아동관이라는 곳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아동관(児童館)'이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아동관'이라는 단어조차 외우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방문한 '아동관'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장난감과 마음껏 놀 수 있는 넓은 공간, 무엇보다도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함께 놀 수 있다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아동관 매니아'라고 불릴 만큼, 친구들과 자주 '아동관'을 이용합니다. 아이의 생일날도 아동관에서 모여 파티를 열만큼 아동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집에도 자주 놀러가는 편인데, 동생이 살고 있는 기타구(北區)에도 넓은 아동관이 있어 아이를 데리고 동생과 함께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